

사람잡을 농약...광주·전남 매년 700명 중독

최근 5년간 3800여명 치료...사후 관리·취급 주의해야

광주·전남지역에서 한해 평균 700명 가량이 농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나주화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2만6271명이 농약 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광주에서는 1265명이, 전남에서는 2564명이 농약에 노출됐다. 한해 평균 광주는 230명, 전남은 466명이 농약에 중독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38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64명, 전북 2638명, 경남 2571명 순이었다.

광주·전남 환자 발생 수는 연도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13년 262명에서 지난해 212명으로 5년동안 50명이 줄었다.

전남은 2013년 555명에서 지난해 400명으로 5년새 155명이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광주 111명, 전남 179명이 발생했다.

농약 환자 발생은 여름철이 가장 많았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다 잦은 병해충으로 농약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손금주 의원은 분석했다.

손 의원은 "농약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취급 부주의 때문"이라며 "특히 농촌은 제조제·살충제 등을 손쉽게 살 수 있는데 반해 독극물 관리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쓰다 남은 농약을 음료수병이나 술병 등에 담아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위험라벨을 붙여 보관하는 등 사후 관리와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대표축제 참여 기회 확대

1시간 1축제 삭제 도의회 조례 개정

시·군당 1개로 제한했던 '전남 대표축제' 선정 기준이 확대된다. 시·군에서 자신있게 내놓을만한 축제라면 2~3개의 축제라도 '전남 대표축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1시간 1축제'라는 시·군별 신청한도를 삭제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매년 전남도 대표축제를 선정할 때 각 시·군당 1개 축제만 신

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각 시·군에 균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오히려 우수 축제들이 시·군 단위 경쟁에서 배제돼 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1시간 1축제'라는 시·군별 신청한도를 삭제, 다수의 축제들이 전남 대표축제로 도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균 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시·군의 도 대표축제 신청 한도가 폐지되면 우수 축제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차별화되고 다양한 지역축제가 발전할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하필 이때 외유라니...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

현대차 공장 설립 지원 지도부 집결한 날 연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광주에 집결한 날 해외 연수를 떠나 비난을 사고 있다.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광주 공장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지도부는 예정부지를 돌며 동분서주하고,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도 해외연수를 떠났다.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임미란(남구3) 부의장과 장재성(서구1) 부의장, 김용집(남구1) 수영대회특위위원장, 김익주(광산1) 행정자치위원장, 김학실(광산3) 교육문화위원장, 박미정(동구2) 환경복지위원장, 이정환(광산5)·나현(비례) 의원 등 8명은 이날부터 31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찾는다.

민주당 광주시당 간부와 공무원 3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수영대회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 도시 교통실태도 둘러본다.

예산은 3200만원, 의원 1인당 250만원이 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체코 프라하 교통공사 방문, 수영대회 관계자 미팅 외에는 관광지 방문, 트램 체험, 오페라 극장 방문 등 대부분 관광 목적 일정으로 채워졌다.

문제는 이들 의원이 해외로 떠난 시점에 굵직한 시정 현안들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광주시 등이 24~25일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고 25일에는 광주시의 국감이 진행된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사업도 23일 표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시민참여단 구성을 앞두고 있는 등 광주시의 최대 현안 사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외유를 떠난 셈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예산정책협의회의 일정이 잡히기 전에 연수 일정이 계획됐고, 11월에는 정례회가 있어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블랙이글스 곡예비행 24일 오후 경남 사천시 공군 사천비행장 하늘 위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야짙한 곡예비행을 펼치고 있다. 공군, 경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 주최하는 '공군과 함께 하는 2018 사천에어쇼'는 25일 오후 1시 30분 사천비행장에서 정식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다채롭게 펼쳐진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 구성

다음달~내년 4월까지 운영 안전성 확보 점검체계 구축

전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세일 위원장과 나광국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는 한빛원전의 끊임없는 안전사고로부터 안전성 확보와 도의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를 위한 대책 수립과 현장점검을 통한 원전안전 전문 및 유사시 대비태세 수립,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원전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빛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적인 점검체계 구축과 원전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연장이 가능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해남군, 농수축산 가공 5개 기업과 290억 투자협약

농수축산 기업 5곳이 해남에 동지를 본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해남군은 이날 해남군청에서 농수축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5개 기업과 총 29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에코드림팜과 해남버섯㈜, 고천양수산2, 구슬샘영농조합법인, 자연채 등이다.

협약에 따라 ㈜에코드림팜은 해남 딸

식품특화단지 6237㎡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난황유 및 난백분 가공시설을 갖추게 된다.

해남버섯㈜은 해남 마산면 송석리 8265㎡ 부지에 7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버섯종균 배양시설을 갖추게 된다.

고천양수산2는 해남 황산면 한자리 4351㎡ 부지에 6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마른김 등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건

립하고, 구슬샘영농조합법인은 해남 옥천면 용산리 2892㎡ 부지에 3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쌀 등 곡물 가공공장을 짓는다. 자연채는 해남 문내면 서상리 4071㎡ 부지에 3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절임배추 및 김치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투자가 실현되면 20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농수축산업이 수

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채취·관광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화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며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전남에 투자하는 기업이 성공하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투자협약 기업들은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남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기업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

전남도내 폐교 58곳 10년 이상 방치

177곳 중 57곳만 활용

전남지역 폐교 58곳이 10년 이상 방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내 폐교는 177개소에 달하고, 이 중 활용되는 곳은 57곳으로 37%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폐교 재산 보유현황 자료도 잘못 입력됐다"면서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비워둔 폐교

중 58곳은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폐교 시설의 유지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면 폐교가 흉물 아닌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국제경영교육 재인증 획득

더 큰 세상을 향한 열정과 꿈, 전남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이 함께 합니다!

경영대학

- 전 세계 106개교에 걸친 Exchange Student Program
- 해외 우수대학과의 Double Degree Program
- 글로벌 현장 감각을 위한 Business Field Program

-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가 부여하는 국제경영교육인증

- 미국 주요 대학 학장들이 설립(1916년)한 비영리 인증기관,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표(교수진 역량, 우수학생 유치, 우수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인증

- AACSB 2012년 최초 인증, 2018년 재인증 획득

경영전문대학원

- 국제화 프로그램
Global MBA의 100% 영어 강의
- 전문 트랙별 MBA 교육 프로그램
실무핵심 전문 경영 인력 양성을 위한 재우회계, 빅데이터, 기술경영 트랙 운영
- Capstone Project를 통한 문제해결중심교육
기업의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 환경에 맞는 현장 문제 해결 중심 교육 제공